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37회)

제10편 소사신앙촌 시대 제1부

- 제 10편
- 소사신앙촌 시대 제1부
- 一. 신앙촌(信仰村)이란?
- 二. 첫째신앙촌 · 소사신앙촌 · 첫째울타리
- 1) 소사신앙촌
- 2) 소사신앙촌이 건설된 장소
- 3) 소사신앙촌 생활
- 4) 영모님이 세운 하늘의 법 앞에 쓰러져나가는 신앙촌사람들
- 5) 노구산 집회: 기우계
- 6) 소사신앙촌의 호사다마(好事多魔): 영모님의 구속과 4.19혁명
- 7) 영모님의 구속 동기
- 8) 영모님의 재판
- 9) 불법적으로 영모님을 처단시도
- 10) 마귀당 총회(總會)를 결성하다: 모세를 모반한 고라당
- 11) 꿈같은 영모님의 석방
- 12) 교단체계를 정비하시는 영모님
- 13) 동아일보 사건

13) 동아일보 사건

이렇게 기술해 나가다 보니 제1신앙촌인 소사신앙촌 시대에 생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많은 사건들을 골격만 추리고 추려서 적어내었기 때문에 이 정도지 그 내용을 어느 정도라도 윤곽을 이해하게끔 쓰려고 하면 몇 십 권의 책으로 엮어도 부족할 것이다.

이때에 1960년 12월 10일 동아일보사건이라는 것이 있다.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 된 일이지 하였으나 너무나도 억울하여 폭발한 사건이었다. 종교가 처음 태동할 때에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열쇠와 질타를 받았다.

왜냐하면 당대에 앞서가는 새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는 것 같이 이해가 되기 때문이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을 가리켜 "천하를 소란스럽게 하는 열병같은 놀이(행24장)"고 하였다.

그래서 영모님을 구속하여 재판을 할 때 당시 재판장이 종교문제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서 재판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참 안 됐다 싶고 또 안스럽기까지

하였다고 앞에서 설명을 하였다. 종교의 오묘한 이치를 종교인들도 잘 모르고 목사나 신학박사라도 알 수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재판장이라고 해도 종교경전 상의 비전문가가 그 종교 진리의 깊이를 꿰뚫어 보지 못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영의 문제는 종교의 특수영역에 속한 문제

언론기관도 마찬가지다. 종교적인 영의 문제를 인위적인 지식으로 거론하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당시의 동아일보는 분명 비종교인이 종교의 깊은 영적인 면까지 개입해서 판단하려고 한 어리석은 일을 시도한 것이었다. 종교 신앙인들의 영적 체험은 본인 외에는 알 수 없는 심령의 안에서만 느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과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생명체에서는 사람뿐만 아니고 나뭇잎에서도 발하는 발광체를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잡은 과학자 진을 많이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어느 정도 상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빛이 방출된다고 하는 것은 과학상식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나뭇잎을 잘라냈을 때에 그곳에서 밝은 빛이 방출되는 것을 사진으로 포착한 것이 있다. 또 사람 몸에서 강렬한 빛을 발하는 것이 사진에 찍혀 나왔다. 이것을 '오라'라고 명칭을 붙였다. 이와 같은 현상포착은 미국의 '헬마모스' 박사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다. 더욱이 도의 경지에 높이 들어간 사람들 통해서도 몸에서 강렬한 빛(보라색 황금색 등)으로 발산한다는 것은 심령계의 상식으로 되어 있다.

박태선 영모님에 대해서는 앞에서 볼 같은 1단계 성령, 생수의 2단계 성령, 이슬같은 3단계의 완성된 성령을 인류 최초로 받아 이루는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이슬은혜 즉 감로(甘

露)는 유불선의 경전을 통하여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완성자를 통해서 방출되는 최고의 완성된 빛임을 자세히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영모님을 통해서 방출되고 있고 또 그것이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에 인화되어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비종교인이, 설사 종교인이라고 하여도 이 경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비종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하고 말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비종교인인 재판장이 종교 교리의 깊은 곳까지 건드릴 때 안스럽게 생각되었다는 말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영적 신앙체험 상으로 비전문가인 언론인들도 이와 같은 종교적인 전문분야를 건드릴 일기만 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영모님 구속 후 재판 시 영모님은 재판관에게 교인들을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박장로가 찬송을 인도하게 하고 감사, 기쁘고 그리고 우리교인들이 같이 사진을 찍어보게 해주기를 간곡히 제안한 적이 있음을 앞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재판장은 그 제안을 아무 해명없이 묵살해 버렸다.

동아일보, 이슬성신 가짜라고 크게 보도해 물의

동아일보에서 전도관의 이슬성화사진이 미덥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었다면 그때에 동아일보를 통해서 박 장로가 제안한 대로 시도해서 사실을 밝혀보라고 만인을 위해서 강력히 주장했었다면 재판부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도 동아일보에서는 그때에는 아무 주장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다가 영모님께서 형을 마치고 출옥하신 다음에 그와 같은 일을 기사화하여 신앙하는 교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일이었다. 어쨌든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이슬성신

사진과 비슷한 것을 사진 조작으로 만들어 신문에 실고는 박 장로교의 성화 사진은 사람이 조작한 가짜라고 큰 지면을 장식하여 보도했다. 전도관 교단에서는 그 기사를 보고 동아일보사에 가서 정중히 설명을 하면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사에서는 비웃으면서 절대 불가하다고 일축해 버렸다. 두 번 가고 세 번 갔다. 그러나 그때마다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무안을 당하고 돌아왔다.

사실 이 시점은 영모님이 구속되시어기가 막힌 고통을 당하시고 출옥하신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다. 전도관 교인들은 영모님이 구속되시어 좌절하고 상심하고 있다가 영모님 출옥하시니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차서 새출발하려는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에 또 동아일보가 전도관 사람들의 용기를 꺾어 놓을 수도 있는 이런 기사를 써낸 것이다.

그래서 전도관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리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야단들이었다. 한번 본때를 보여 줘야 한다고 야단들이었던 것이다. 결국 전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다. 동아일보 앞에 가서 데모를 하자는 것이다. 동원 인원은 서울 인천 소사신앙촌 교인들만 동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동아일보사로 모일 때는 절대로 단채로 가지 말고 두 세 명씩 개별적으로 가기로 하였다.

정정보도 요구 목적

왜냐하면 한꺼번에 단채로 가면 눈치를 채서 시위를 하기도 전에 발각되어 목적을 달성 못할까봐서였다. 날짜는 1960년 12월 10일로 정했다. 예정된 당일 되었다. 동아일보사 앞에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오후 1시경이었다. 순식간에 동아일보사 앞에는 인파로 뒤덮였다. 광화문 네거리가 교통이 마비가 되었다. 전도관 대표들이 동아일보사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정정보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역시 대답은 똑같았다. 동아일보 편집부 사람들에게 밖을 내다 보라고 하였다. 그들은 밖을 내다 보고는 잠시 놀라는 듯하더니 '아무리 그대보야 너희가 별 수 있겠냐'라는 듯이 저희들 할 일만 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은 2시 3시가 되었다. 동아일보 앞에는 교통경찰이 수십 명 동원해서 교통정리 하느라고 야단이었다. 구경꾼들은 구경꾼들 대로 계속 몰려들고 있어 그 일대는 아수라장을 이루었다.

대표들이 신문사에 들어가서 대화가 잘 되면 트럼펫으로 '천년성 거룩한 땅 들어가려고' 찬송을 불 것이고 반대로 대화가 결렬되면 진군나팔을 불기로 약속 되어 있었다. 돌연 진군나팔을 불어대는 트럼펫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진다. 그 진군나팔소리를 신호로 전 교인들은 일제히 '와!' 하는 함성을 지르면서 동아일보 정문으로 달려가서 동아일보 정문을 통과하여 물밀 듯이 달려 올라갔다. 2층 3층 등 전 동아일보는 교인들로 아수라장이다. 동아일보 내에 있는 것은 닳치는 대로 창문 밖으로 던져던졌다. 창문 밖은 집어던진 물건들이 날리고 떨어지고 하면서 무슨 축제 때에 꽃총이를 날리는 것 같았다. 흥분된 교인들은 정말 동아일보를 요절멸 것처럼 난리를 쳤다. 흥분된 어떤 교인이 "윤정기에 모래를 뿌려 아예 동아일보를 박살을 내버려라!"라고 소리치르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책임자들은 윤정기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절대로 윤정기를 건드리면 안된다며 적극 만류하였다.

윤정기에 모래 넣는 것을 막음

간부들은 흥분한 교인들에게 소리치기 시작을 하였다. 이성을 잃으면 안된다. 이성을 찾아라 라고 하면서 흥분한 교인들을 정신없이 말리기 시작하였다. 흥분된 교인들을 말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영모님을 옥중에 구속시켜 놓고 몇

년 동안 전국의 언론이 전도관과 신앙촌을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단채라고 계속 몰아치면서 때려낸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분풀이를 해치우려는 듯이 분풀이를 하고 또 해대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늘의 백성들이 이성을 잃고 큰 일을 저지르면 큰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책임자들 약 20여 명은 손을 맞잡고 윤정기 있는 곳으로 가서 스크림을 짜고 일체 교인들이 윤정기 있는 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책임자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윤정기는 무사하게 지켜졌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같은 혼돈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냉정성을 찾아서 질서를 유지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수많은 경찰들이 몰려들었다. 수많은 경찰 트럭이 동원되었다. 교인들이 끌려 강제로 트럭에 실려가기 시작했다. 서울시에 경찰서가 교인들로 초만원이 이루어졌다. 서울시에 경찰서는 밤새도록 초 비상이 걸렸다. 그 많은 교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교인들의 관심을 보고 적당히 훈방을 시키기 시작했다. 주동인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뿐만 유치장에 넣었다. 이때에 구속된 사람들은 재판을 받고 1년에서 3년까지 형을 받고 징역을 살았다.

이상과 같은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서로 피차간에 조금만 이성을 찾고 순리를 찾아서 활로를 모색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다.

지금도 이슬성신사진을 가져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미혹시킨다고 야단들을 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는데 이런 율화가 치밀 때가 많다. 왜들 그러는가? 좀 냉정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짧은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제발 그만 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欲鐵養生保命處 육식창생보명처
吉星照臨眞十勝 길성조림진십승
兩白三眞眞理 양백삼眞眞리
眼赤紙凡人不睹 안적지화인부도
九宮加一十勝理 구궁가일십승리
春滿乾坤福滿家 춘만건곤복만가

창생들이 목숨을 보전하는 곳을 알려거든 길성이 비추며 임하는 진짜 십승을 찾아가라. 길성은 어두운 밤 활로(살길, 영생의 길)를 열어주는 밝은 별로서 구세주라는 뜻이며 구세주 정도령은 밝은 별이라는 합자를 가지고 있다. 이 분이 진짜 마귀를 이기신 십승이다. 또한 구세주는 조(曹)씨로 강림하시니 이분이 진짜 십승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照臨은 曹臨이다. 동음이의(punning)를 이용한 암호이다. 미특진경에 사죄천조구중생(赦罪天曹求衆生)이라 하

“照臨은 曹臨이다”

과 같이 된다. 건곤은 천지의 역철학적 표현이다. 건(乾)은 천(天)을 곤(坤)은 지(地)를 의미한다.

龍龜河洛兩白理 용구하락양백리
心清身安化生人 심청신안화생인
世人不知變宮理 세인부지쌍궁리
天下萬民解冤世 천하만민해원세
渡海移山海印理 도해이산해인리
天下人民神判機 천하인민신판기
四口合體全田理 사구합체전전리
黃庭經讀丹心田 황정경독단심전
四方中正從金理 사방중정중금리
日月無光不夜城 일월무광불야성

용마하도(태

백) 영구낙서(소백) 즉 양백의 이치는 사람의 더럽고 탁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 병들고 불편한 몸을 편안하게 해주어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 쌍궁 즉 궁궁의 백십승이신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이 좌정한 이 분이 천하 만민을 해원시켜주고 있건만 세상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있으나. 쌍궁은 궁궁으로 배궁(背弓)이면 백십승이요 화궁(和弓)이면 匠人 공(工)자이다. 즉 신공(神工)이다. 바다를 건너고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는 해인은 하나님의 신(정도령)이 천하 만민을 심판하는 기기(機器)이다. 입 구(口)자 가 네

개이면 온전한 발 전(田)가 되는데 전(田)의 이치는 황정경을 정성들여 읽는 마음을 뜻하는 심

전(心田)이다. 황(黃)은 토(土)를 의미하고 하나님 지리이다. 또한 황(黃)자 속에 전(田)자가 있다. 사방이 모두 똑바른 하나님의 마음 발인 전(田)은 금운을 좇아 나오시니 그 곳은 해와 달이 빛이 없어도 밝고 밝은 광채가 빛나는 곳이다.

落盤四乳十字理 낙반사유십자리
死中求生完然覺 사중구생완연각
水火升降病却理 수승화강병각리
不老不死甘露露 불로불사감우로
三人一夕修字理 삼인일석수자리
眞心不變覺信天 진심불변득신천

소반의 네 젓꼭지가 떨어져 나간 것과 같은 십(十)자(십승)

의 이치에서 죽음에서 벗어나 불사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으라. 수승화강으로 병을 물리치는 것은 불로불사의 감로해인으로 인함이라. 수승화강이란 전(田)자 속의 십(十)자 즉 감로해인으로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주장함으로써 병(병마)을 물리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잘 닦아야 하는 이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참된 마음 변치 말고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어야 하나니라. 삼인일석(三人一夕)은 닭을 수(修)의 파자이다.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정도령)의 마음과 같이 되도록 마음을 닦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석(夕)자는 팔 쪼(ㄷ) 속에 점 주(丶) 즉 하늘의 주이니 하늘의 주를 마음에 감싸듯 모시는 의미가 있다. 마귀 마음을 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닭을 수(修)의 뜻이다.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잘못을 알고 있어도 고치지 않고는 감로해인을 받을 수 없다.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 찬송 열불 주문 알음알이 지식 등으로는 감로해인을 받아 마귀를 멸하기는커녕 자신 속의 마귀를 키우는 결과밖에 안 될 것이다.*

박명하 / myunghpark23@naver.com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혁신명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할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022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